보 도 해 명 자 료
('16.8.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"한전 순익 1400억원 빼내 가전 보조금 뿌린다는 정부"
(한국경제 A01, 05면, 8.4일)

1. 기사내용

□ 가전 인센티브 재원으로 한전 이익금을 활용하여 '주주가치 침해' 논란 등

□ 한전이 영위하는 투자·사업과 무관한 영역에 지출 등

□ 재원대책도 없이 발표. 기재부·산업부 '핑퐁'에 한전 '덤터기'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① 한전 이익금을 활용하여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

□ '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사업'은 한전과 주주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일이 아님

○ 고효율기기 보조금 지급시 보급이 확대되어 피크전력이 감소함

- 피크전력 감소는 추가 발전소 건설을 회피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소 가동을 감소시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한전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임

○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미국에서도 규제위원회가 전력회사*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

* 사례 : 캘리포니아주 PG&E, 오하이오주 DP&L, 펜실베니아주 PennPower

○ 아울러,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은 총괄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으로 동 사업도 한전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총괄원가에 반영될 예정이며, 이익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림

② 한전이 영위하는 사업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

□ 동 사업은 한전의 고유사업과 부합하는 사업임

○ 최대 전력수요를 낮추고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은 발전소 추가건설 비용을 회피하고 한계비용이 비싼 LNG발전소 가동을 줄일 수 있음

- 이는 한전의 구입전력비 절감으로 이어져 전력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한전의 고유사업과 무관하지 않음

○ 한전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따라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(에너지효율향상사업)을 LED, 고효율전동기, 심야히트펌프 보일러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, 이번에 가전제품으로 대상품목을 다양화한 것임

○ 미국·캐나다에서도 전력회사들이 에너지수요관리 등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

* ① (美 PG&E) 세탁기, 가스온수기, 전기온수기, 에어컨 등, ② (美 DP&L) 에어컨, 공기히트펌프, 공기냉각기 등, ③ (美 PennPower) 세탁기, 의류건조기, 냉장고, 냉동기, 제습기 등, ④ (캐 HydroOne) 에어컨, 보일러 등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③ 재원대책도 없이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

□ 재원확보 문제는 발표이전부터 이미 검토했었음

○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, 추가경정예산 등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으나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김상모 과장(044-203-5360)
김정기서기관(044-203-5361), 홍수경사무관(044-203-5363)
전력진흥과 김태현사무관(044-203-5264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8-04 13:16:38